공동체 소식

대림 제2주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 12월 기도지향

+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냉담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 대림시기 안내

- 대림시기는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 지난주일 대청소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 12월 맨하탄,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 구역별 판공면담 및 성사 - 일정과 장소

- 일정: 1구역: 12/9 (금) 저녁07:00-09:00,
  2구역: 12/10 (토) 저녁07:00-09:00,
  3구역: 12/16(금) 저녁07:00-09:00,
  4구역: 12/17(토) 저녁07:00-09:00,
- 장소: 본당 나자렛 교육관.

▣ 성탄선물 준비 및 나눔 안내

- 선물봉헌일시 : 12/25(주일) 오전11:00미사 중 봉헌
- 내용 : 신자들 각자 20불 이하의 선물과 카드를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성탄당일 현금 20불로 나눕니다.

▣ 예수 성탄 대축일(12/25)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1) 애찬조

- 성탄절(주일): 행사 1조.
- 1/1 대축일(주일): 행사 2조.

▣ 성인 세례성사 공지

- 일시: 2017. 1. 1(주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중.
- 대상: 김태선, 김태디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거주).

▣ 성탄 꽃봉헌 받습니다.

- 기간: 11/27(주일) - 12/4(주일)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89	219	160	93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정예진 한나	문호진 안토니오
	문예나 요안나	정예찬 미카엘
차 주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정예진 한나	김준영 요셉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차주	정수한 베드로	박희영 카타리나
		최선윤 마리아

▣ 애찬 봉사자

금주	김명은, 한춘희, 안혜진
차주	정연숙, 박동희, 임수현

▣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1/27	57명	286불	50불
(총 1 세대)			
건축헌금	지난주 합계: 0불, 총합계: 7,550불		

대림 제2주일 |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 2016년 12월 4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며, 한국 교회가 정한 인권 주일이고 사회 교리 주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사회를 보는 올바른 눈을 가지게 하는 사회 교리를 배우고 익혀 시대의 징표를 예민하게 읽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성화해설

세례자 요한의 설교

(도메니코 기를란다요, 1486-1490년,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폴로렌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3,2) 세례자 요한이 강조한 회개는 불안정하고 잘못된 생활에서 새로운 희망과 올바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삶에서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는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시기의 삶의 자세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11,1-10
<그는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리라.>

화 답 송 :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5,4-9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12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쉐 마

회개의 삶

1독서에 당겨있는 이사야 예언서를 읽다 보면 하느님 나라, 올 한 해 읽게 될 마태오 복음사가의 표현에 따르면 하늘 나라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 하느님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하느님 나라나 하늘 나라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하늘 나라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로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정의롭게 다스려지는 나라, 곧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늑대, 표범, 새끼 사자가 새끼 양, 새끼 염소, 송아지와 함께 지내는 평화의 나라이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을 쳐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화해의 나라입니다.

이 이미지 속에서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 나라라고 해서 늑대가 양이 되고, 표범이 염소가 되며, 사자가 송아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두 자신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하느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뿐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런 나라가 곧 도래하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늘 나라가 도래하면 서로 다투며 살던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와 거기서 전해지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 뜻에 따라 통치되는 시대, 곧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사실, 요한은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파견된 엘리야 예언자로(말라 3,23), 하늘 나라를 준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하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즉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늘 나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은 마태오 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오 복음사가가 하늘 나라라고 표현할 때에는 단순히 하느님, 메시아가 임금이 되어 이 땅 위에 세울 어떤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하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태오 복음 사가는 예수님을 하늘 나라와 동일시합니다. 특히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느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하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났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 나라에 속하게 된 이들입니다. 곧, 하느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 삶 주변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들, 곧 하늘 나라에 대적하는 이들과 하늘 나라를 거부하는 세력들과 싸우며, 그로 인한 박해를 기꺼이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의 십자가라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대림 시기를 맞아 자신의 자리에서 하늘 나라를 위해,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각자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되돌아봅시다. 내 주변에서 하느님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란 우리 삶을 하느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회개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하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살아갑시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사도 바오로의 동료, 아리스타르코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위대한 업적과 눈부신 활동 뒤에는, 뒤에서 숨어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진정한 충성은 보통 평화로운 때보다 어려움과 수난을 당할 때 그 진가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험난한 복음전파 활동 중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기도했습니다. 그의 선교활동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위험에 처할 때 복음을 버리고 그의 곁을 떠난 동료들도 많았습니다. 필레몬서 마지막에서 언급하는 협력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필레 1,2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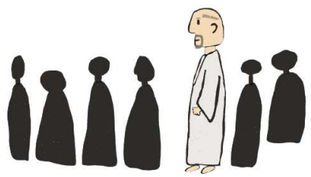
에페소서는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데메트리오스라는 사람은 은으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당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큰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데메트리오스의 이 부분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자 데메트리오스는 사람들에게 신전이 무시 당하고 아시아와 온 세상이 숭배하는 이 여신께서 위엄마저 상실하실 위험에 놓였다고 공격했습니다. 에페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했고 온 도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오로와 동행한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19,21-30**

사도 바오로는 그의 선교 방향을 이방인들에게 맞추려고 결단한 후, 자기를 따를 일곱 사람의 이방인 신자를 찾았습니다. 그때 동행한 사람의 명단에 아리스타르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카 출신이었는데 사도 바오로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합세하면서 끝까지 바오로 곁에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성서에서 아리스타르코스는 사도 바오로의 선교 동행자로서 개인적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오직 사도 바오로의 동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와 동행한 7명은 누구일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20,1-5**

필레몬서와 콜로새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아리스타르코스를 감옥 친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리스타르코스가 어떤 범죄 사건으로 투옥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오로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보다 더 능력있고, 훌륭한 동료와 협조자를 곁에 두고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서 아리스타르코스 같은 이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교회가 나날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리스타르코스는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이런 봉사자야말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사회에 더 필요한 인물입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광야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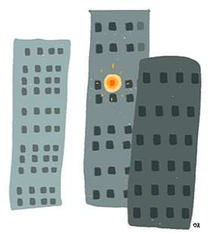
어두워진 시내를
그대는 걸어 보았는가

삭막하고 고요하며
조용하고 외로우며
쓸쓸하고 위태로운

하지만
작은 창문의 빛이
따스한 위로를 준다

그대 광야에 있음을
그러나 그대
혼자가 아님을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을 빛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마태 3,3)

– 임의준 신부